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지역언론 토크아보기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 문서번호	지역언론토크아보기2021-009
• 수 신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제 목	지역방송이 강조하는 미디어선거, 소수정당·후보는 해당없다?
• 날 짜	2021년 2월 18일

### 지역방송이 강조하는 미디어선거, 소수정당·후보는 해당없다?

선거토론방송, 형평성 맞는 기회 부여하고 중계 이후엔 검증 나서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치열한 가운데 2월 15일부터 양당은 TV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경선 후보의 정책과 후보 검증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선거운동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미디어선거, 정책 선거에 집중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양당의 토론회는 지역방송 3사가 나눠 중계합니다. KNN이 4회, 부산MBC가 3회, KBS부산이 1회 방송합니다. 각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주관·주최하는 토론회인 만큼 방송 제작비는 각 정당에서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b>맞수토론 (1:1토론)</b>	
2021. 2. 15 (월) 17:15 부산 MBC 스튜디오	
1부	박성준 후보 - 박민식 후보
2부	박형준 후보 - 이연주 후보
2021. 2. 18 (목) 18:00 KNN 스튜디오	
1부	박성준 후보 - 박형준 후보
2부	박민식 후보 - 이연주 후보
2021. 2. 22 (월) 17:15 부산 MBC 스튜디오	
1부	박성준 후보 - 이연주 후보
2부	박민식 후보 - 박형준 후보
<b>비전토론 (합동토론회)</b>	
2021. 2. 25 (목) 18:00 KNN 스튜디오	
합동	

▲ 출처 : 국민의힘 부산시당 홈페이지

<b>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후보 TV토론회 일정</b>		
2월 17일	오후 5시(120분) KNN	떠나는 부산에서 돌아오는 부산으로
2월 19일	오후 7시 40분(50분) 부산KBS	날자! 가덕에서
2월 28일	오후 1시 10분(100분) 부산MBC	살고 싶은 부산을 그리다
3월 1일	오후 6시(120분) KNN	누가 부산찬가를 부르게 할 것인가

▲ 출처 : 부산일보 2월 16일자

토론방송에서 드러나는 후보의 주요 정책과 후보 상호 검증 내용, 그리고 토론 태도 등은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방송의 적극적인 중계는 환영할 만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당내 경선후보 토론회가 각각 4회 방송되는 동안 소수정당, 무소속 후보에게는 정책을 알릴 기회가 편성되지 않아 형평성 측면에서 아쉽습니다.

## 진정한 미디어선거 되기위해 소수정당·후보에 기회줘야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 또는 방송하는 경우,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소수자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출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는 소수자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당 또는 후보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토론방송은 선거관리위원회나 방송사 주최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주최·주관을 맡아 진행하는 것으로 지역방송사는 편성, 스튜디오 제공 및 중계 역할을 할 뿐이라며 ‘공정성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각 당의 후보가 모두 선출되면 그때부터 형평을 맞춘다는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 주최 토론방송이라 해도 공공재인 전파를 통해 유권자에게 전달되기에 공정성을 견지해야 함을 당연합니다. 더구나 부산MBC는 자체 유튜브 방송인 <예비후보 생생토크 '탈곡기'>에서도 양당 경선 후보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 3사는 거대 양당의 당내 경선을 양자 후보 맞수토론(국민의힘), 이슈별 연속토론(더불어민주당) 형식으로 연이어 방송함으로써, 거대 양당의 후보를 부각하고 지역 이슈를 선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탄탄한 두 정당 후보들의 미디어 노출도만 높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경선을 치르는 거대 정당 외에도 어떤 정당의 어떤 후보가 선거에 나서고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수정당과 그 후보를 알리는 방법도 함께 고민하고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기를 요청합니다.

## 정당에서 기획한 토론방송 중계에만 그쳐선 안 돼

날짜	KBS부산	부산MBC	KNN
2/15	<여.야 경선 승부처 TV 토론회 돌입>(단신)	<여야 경선, TV 토론회 강화> <국민의힘 맞수 토론, 치열한 공방>	<여야 TV 토론 시작, 경선 승부처>
2/16	<박민식 "야구 통해 부산 역동성 부활시킬 것">(단신)	<미디어 선거 시작됐다> <한-일 해저터널·40년 논란>	보도없음

		의 실체는?)	
2/17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경선 TV토론회 이어져〉(단신) 〈김영춘, "5년간 130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단신)	〈보궐선거 온라인 시사 프로그램 '탈곡기' 시작〉(단신)	〈민주당 첫 경선 토론회, 공약 놓고 격돌〉

▲ TV토론 시작한 2월 15일 이후 방송 3사 메인뉴스의 4.7부산시장 보궐선거 보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보궐선거 TV토론이 시작된 15일 이후 지역방송의 보궐선거 보도를 찾아봤습니다. 지역방송 3사 모두 15일 저녁뉴스에서 TV토론 시작을 알리며 이후 일정과 미디어선거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또 토론방송에 나온 공약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토론에서 나온 후보의 발언을 검증하거나 해설하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KBS부산은 토론개최를 단신으로만 전했고(15일, 17일), KNN은 17일에 있었던 자사 방송 토론 내용만 전했습니다. TV토론 시작 이후 부산MBC만 보궐선거 이슈로 떠오른 ‘한-일 해저터널’ 논란을 짚었습니다.

이전 선거 투표율로 볼 때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부족한 보궐선거인데다, 코로나19로 대면 유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방송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당 토론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제기를 추가 취재해 알리고, 정당이 아닌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 평가와 후보 검증에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합니다. TV토론회의 취지도 결국 유권자에게 후보와 공약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